세계은행, 중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세계은행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중국의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8.2%로 하향 조정함.

- 세계은행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 둔화로 인한 중국의 수출 감소, 투자와 소비 증가율 둔화 전망에 근거하여 2012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의 8.4%에서 8.2%로 낮춘다고 발표함.
- 2013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세계 무역 규모 확대로 지난 1월의 8.3%에서 8.6%로 상향 조정되었으나, 장기적으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이 평균 8.5%, 2030년까지 5.0%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.

■ 2012년 1/4분기 경제성장률은 수출회복 불확실성이 커지고 내수가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8.1%를 기록함.

- 2012년 1/4분기 중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함.
-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2012년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.9% 증가하였고 수입은 같은 기간 5.3% 증가함.
- 수출 둔화는 경기침체나 내수부진을 겪고 있는 EU, 한국, 대만으로의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기 때문임.
  - 2012년 2/4분기와 3/4분기 중 유로존의 경제성장세가 1/4분기에 비해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로존에 대한 수출 감소세 지속 가능성이 높음.
- 수입이 둔화된 것은 내수성장세 둔화에 기인함.
  - 전년동기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은 2011년 12월 18.1%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 2월에는 14.7%로 하락함.

■ 세계은행은 중국경기가 단기적으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둔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국 정부의 정책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함.

- 세계은행은 중국이 경기 하강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·통화정책, 예를 들면 재정지출 확대나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정책수단을 갖고 있다고 분석함.
- 다만, 인플레 압력을 이유로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임.
  - 중국의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 금리는 6.56%, 예금금리는 3.5%인데 물가상승률이 2011년 5.4%였음을 감안하면 예금금리 수준은 사실상 마이너스임.

(World Bank, 4/11)